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 (1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3.(금) 10:00~12:00,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2차) 회의일시 및 장소 : 2019.5.14.(화) 9:30~14:00, 이음센터 커뮤니티룸2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심의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PT/인터뷰 심의를 통해 진행 되었으며, 1차와 2차 심의회의 모두 모든 심의위원이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발표내용에 대해 전수검토의견을 작성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1차 서류 심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원칙적인 심사 기준을 설정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조사·연구 계획이 얼마나 충실하며 설득력이 있고 결과물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가이다. 이는 다른 사업과 달리 장기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차세대 유망 시각예술가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사업 취지가 단순 전시 지원이 아니라 연구 프로젝트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작업의 독창성, 계획의 구체성, 기존 작업과의 관계, 차세대 작가 및 큐레이터로서의 성장 가능성, 시각예술로서 유의미성 등을 중요하게 감안했다. 장르 간의 안배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매체와 무관하게 심사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1차 심사는 포트폴리오 없이 구체적인 조사·연구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담긴 지원서만으로 심사를 했기에 보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능한 많은 지원자에게 인터뷰 심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작가 부문 지원자가 큐레이터 부문 지원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원서의 충실성과 완성도 역시 작가 부문 지원자가 우수한 경우가 많았기에 작가의 경우 1차 선정자를 기준보다 많이 선정하여 우수한 지원자가 누락될 확률을 줄이고자 했다. 지원자 수가 많음에도 조사·연구라는 사업 취지에 충실한 지원서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관심 주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일반적인 개인전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지원서가 가장 흔했고, 연구 프로젝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과 구체적 관계가 없는 거대 담론을 과하게 나열하거나 보여주기 식의 접근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현장 답사가 작업과 무관한 외유성인 경우, 시각예술이라기보다 공연이나 공예 등 타장르 지원사업에 적합한 경우도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최근 유행하는 포스트 인터넷이나 포스트휴먼, 웹, 뉴미디어, 융복합 관련한 주제가 많았다는 것인데, 작업과의 관계가 무관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주목받는 주제인 만큼 기존의 성과들이 없지 않은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작업과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트렌디한 담론만을 작업의 이미지로 취하고자 하는 듯해 아쉬웠다. 지원을 위해 주제를 표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와 이를 자신의 언어로 진지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한편, 작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진정성이 간취되거나 지원서가 지나치게 소략되어 있어 지원자의 차별성과 향후 연구 계획이 짐작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지원서는 개인적인 고민을 토로하기보다

다른 지원자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창성을 보이고 이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심사자를 납득시켜야 하는 것임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큐레이터 부문의 경우 역시 최근 미술계에서 주목받거나 시의성이 강한 주제가 많은 편이었다. 디지털이나 뉴미디어, 여성주의 등이 그러한 주제에 해당하는데, 주제의 적절성과 함께 이를 전개할 연구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아쉬운 점은 큐레이터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서의 초점이 전시 및 연구의 내용에 치우쳐 있고 형식이라 할 수 있는 큐레이토리얼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다. 최종 결과물이 전시(혹은 이에 준하는 시각 결과물)인 만큼 보이는 형식에 대한 차세대 큐레이터들의 연구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2차 PT/인터뷰 심의>

PT/인터뷰 심의의 경우 총 14명의 후보자들(작가 10명, 큐레이터 4명)의 지원서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의 독창성과 충실성, 조사연구 방향 및 대상 선정의 적절성, 사업 수행역량 및 기대 효과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서류 심의를 통해 어느 이상의 창작 역량과 사업 계획의 성실성이 갖추어진 지원자들인 만큼, 후보자들이 제안한 주제 및 작업들이 개념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제시된 계획안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여 사업의 적실성을 엄정히 검증하고자 했다. 인터뷰 심의의 경우에도 장르 안배는 고려하지 않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작가의 경우, 지원서와는 달리 인터뷰 과정에서 주제 설정이나 연구 방법론이 피상적이거나 모호해 필연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발견되었고, 기존 작업과의 차별성이 희박한 경우들도 존재했다. 조사연구라는 사업의 취지상 기존 작업을 확장해 심화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고르게 높은 평점을 받았다. 큐레이터 부문에 비해 훨씬 경쟁률이 높고 그만큼 지원서의 수준도 높은 편이라, 작가의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자 했다.

큐레이터의 경우, 후보자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연구주제나 접근 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고려하기보다 사업 계획 자체의 충실성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LGBTQ, 미투운동, 분단과 여성 이미지 같은 시사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의 경우, 주제의 적절성과 시의성은 인정되나 설정된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입장 등이 아직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작품의 제작 구조에 방점을 둔 지원자의 경우, 형식 분석의 취지는 좋으나 조사연구라고 보기에는 개별 작가 연구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 기획의 대상과 의도 및 방법론을 좀 더 베풀 필요가 있어 보였다. 또한 지원자들 모두 설정한 주제를 전시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다. 학술 연구 지원이 아니라 기획 지원인 만큼, 매력적인 주제 선정 외에도 이를 전시(이에 준하는 시각적 결과물)라는 시각적 포맷으로 어떻게 가시화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고민(기획의 입장, 작가 선정 기준 및 방식, 작품에 접근하는 태도, 협업의 방식 및 기준, 연출, 공간 구성, 전시의 목적,

부대행사의 필연성 등이 사업 계획에 있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을 유념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심화시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